

완도군, 맞춤형 귀어·귀농 정책 인구 늘리기 박차

전담팀 신설, 안정적 정착 지원 주택 구입·모임 육성·역량 교육 농수산물 판매·유통 지원센터 운영

완도군이 다양한 귀어·귀농·귀촌 정책으로 인기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등 유입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완도군은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어, 귀농·

촌인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선 8기 조직 개편 시 인구일자리정책실에 귀촌지원팀을 신설하고 귀어,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완도는 우리나라 수산1번지로 수산 양식과 어선 어업 등 귀어하기에 좋은 여건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 깨끗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농업, 생활 여건 등 완도만의 장점을 홍보하며 귀어, 귀농·귀촌인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는 귀어·청년 어촌 정착 지원, 귀농·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융자), 농어가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운영, 귀촌지원

센터 운영, 귀농·귀촌인 모임 육성,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귀촌지원센터의 경우, 각종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귀어, 귀어·귀촌인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또한 센터를 귀어, 귀농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유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귀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인기 많은 '완도에서 살아가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어인의 집을 확대 조성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의 경우 귀농보다 귀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나 일부 마을 어촌계에서 가입을 쉽게 해주지 않아 귀어인에게 어촌계 진입 장벽을 완화해 주는 마을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귀어, 귀농·귀촌에 성공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귀어, 귀농·귀촌인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시민을 유치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귀어,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군에 정착하여 희망이 있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강철 '야생조류 사진전' 27일까지 영광 산림박물관

오는 27일까지 영광 불갑산 산림박물관 전시관에서 생태사진가 강철(사진)의 '야생조류 사진 초대전'이 열린다. (사)법성포단오제보존회에서 주관하고 영광 일포사진관에서 기획한 이번 초대전은 지난 11일 초대전 오픈식을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물총새와 파랑새, 동박새 사진 등 생태사진가 강철이 직접 촬영한 그간의 작업물들을 집대성에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



무안군 남악-해제면 도농 상생 농산물 직거래장터

남악 신동아파밀리 아파트서 해제산 소금·콩 등 저렴한 판매

무안군 남악의 한 아파트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무안군 남악 신동아파밀리 아파트에서 해제면 수포마을(이장 최정현)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도농공동체 교류협력 창안대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직거래 장터 판매는 해제면 수포마을에서 싼고 온 해제산 농산물(소금, 콩)을 가지고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내 광장에서 진행했다. 해제면 수포마을은 남악신동아파밀리에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직거래장터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했다. 남악-해제면 직거래 장터는 오는 26일 남악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광장에서 한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군 남악 신동아파밀리에 열린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해제면 수포마을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최정현 이장은 "해제는 무안에 염전 3곳 중 2곳이 있는 지역으로 고품질의 소금을 저렴하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었다"고 전했다.

한편 남악과 해제는 지난달 초에 첫 창안대회를 열어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꾸준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61억원 투입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40개 노선, 60개소 정비 완료

완도군이 60여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도로' 만들기 나선다. 완도군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61억 7000만 원을 확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선형 개선 및 재포장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40개 노선, 60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도로 균열 및 부등 침하 등으로 통행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은 아스콘 덧씌우기, 차도 폭 협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도로 확포장, 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 불량 도로 개선 공사 등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원활한 통행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로 표지, 차선 규제봉,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 보강과 주요 간선 도로변 환경 정비, 포트폴리 보수, 퇴적된 배수 시설 토사 제거 등도 실시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에 대해 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표지, 과속 방지턱, 안전펜스,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점검하였으며, 노후·훼손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정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차재철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최적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은 물론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도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소통행정... '군민의견함' 7곳 설치

진도군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군민의견함을 설치, 운영한다. <사진> 군민의견함은 다양한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고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7개 읍·면사무소 입구 쪽에 지난 9월 말부터 설치했다. 진도군 발전을 위한 공익적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읍·면에서 즉시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군정에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군은 읍·면별 군민의견함 설치로 현장중심 행정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www.jindo.go.kr) '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운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군민 소통채널



도 운영 중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을 섬기는 위민행정을 펼치고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민원의 신속 처리와 현장에서의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이 되어 모두가 살기 좋은 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형 ESG 윤리경영'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안부장관상

ESG 접목 군정 혁신 우수사례

해남군이 역점 시책인 '해남형 ESG 윤리경영'이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행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 창의적 우수시책을 선정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해남군은 ESG 가치를 접목한 군정 추진이 지방공공기관 혁신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남군은 민선8기 청정환경(E)이 함께하는 안전사회(S), 신뢰행정(G) 완성을 목표로 올해 초 비전을 선포하고, 부서별로 ESG 가치를 다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군정 전 분야로 확산하기로 하고, 군민 참여형의 실천과제를 통해 범군민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환경(Environment)을 위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전 읍면 확대, 6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농업 육성, 친환경 관광정책 추진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활성화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구축과 자치활동가 양성, 장학사



업무금 500억 조성을 주축으로 한 교육·공동체 육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평·공정·공개의 정렬한 공직문화 조성 과 대한민국 SNS 공공부문대상 4년 연속 수상으로 입증된 소통채널 강화는 소통과 참여의 신뢰행정(Governance) 실현을 인정받았다. 군 주도의 ESG 정책추진을 넘어 군민과 함께 실천하는 ESG를 실현하기 위해 46개 기관·단체와 ESG 실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릴레이 캠페

인과 ESG 캠페인송, 월별 미션 캠페인을 통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군정 전반에 ESG 윤리경영을 추진하여 바르고 유능한 군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은 해남형ESG 성장의 해로 삼고 주민제안형 ESG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군민이 주축이 되는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30년 만의 최악 가뭃...신안군 선제 대응 효과

2월부터 4단계 대응계획 수립 대체수원 개발...유수율 향상

30년 만의 가뭃에 맞선 신안군의 선제 대응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신안군은 전체가 섬으로만 형성되어 대부분 지방상수도로 육지에 비해 급수 조건이 열악하다. 특히 유례없는 30년 만의 가뭃으로 11월 14일 현재 신안군의 강수량은 654mm로 평년 강수량의 62%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방상수도 13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17~30%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의 선제 대응이 효과를 발휘해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신안군은 가뭃 장기화를 예상하여 금년 2월부터 재난 수습이 아닌 사전 대응을 위해 대체수원 활용 방안 마련과 함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등 총 4단계로 사전 비상급수체계를 확립해 대응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이 대응 계획에 따라 신안군은 자체 예산 28억 원을 조기 투입하여 지하수, 농업용수 펌핑 등 대체 수원을 개발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치식 사용하기, 빨래 모아서 하기, 상수도를 이용한 농작물 불주기 금지 등 물 절약 캠페인을 적극 진행했다. 캠페인 결과 암태·비금면의 경우 하루 450 t 이상의 물 절약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사업비 307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유수율을 50.3%에서 87.9%까지 끌어 올리는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장의 상황에 맞게 선제 대응하는 신안군의 노력이 가뭃 기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2월 매화도를 시작으로 2025년 중부권 4개 면, 2030년까지 흑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신안군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섬살이의 지긋지긋한 가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시, 하당 통일대로 육교 흔들림 감지...출입통제 긴급점검

목포시가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보행자가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흔들림을 감지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현장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안전전문 용역사, 시설물 관리 업체 등과 함께 당일 야간에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점검에서 구조와 안전상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시는 최근 사회적 안전 중대 육교가 커짐에 따라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의 보행자 통행에 차단하고, 지난 14일부터 안전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안전정밀진단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육교 개방시기를 결정할 방침인데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 후 개방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백련문화센터 역전영화관 개관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일로읍 백련문화센터에 영화관 개관

무안군 일로읍에 영화관이 문을 열었다. 무안군은 일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건립된 백련문화센터에 역전영화관이 최근 개관했다고 밝혔다. <사진> 일로읍 백련문화센터는 지난 8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도예체험과 인문학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역전영화관 개관식에는 나광국 도의원과 박상배 의원, 임은택 의원, 김병성 의원, 사회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민 40여명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성주 백련문화센터장은 "무료상영을 통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문화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로읍 백련문화센터 역전영화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무료로 상영하며, 목요일 전후로 일로 장날인 경우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 삼호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8년 연속 선정

영암군 삼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2023년도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16년 이래 8년 연속이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상호문화 이해와 사회 통합 도모를 위해 문화부가 추진한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삼호도서관은 지금까지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2천290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했다. 내년에는 '알-수-우리 다(多)가지 놀아보세(世)'라는 주제로 알-수! 재미나네 우리 동화, 맛 썰나네 우리 음식, 굽다굽네 우리 한복의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